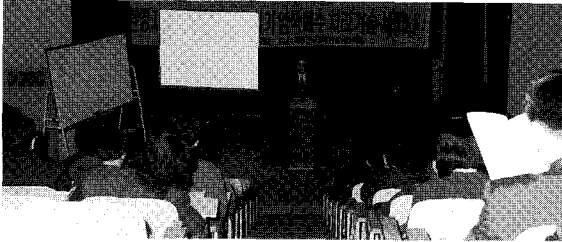


대구·경북협의회

염색폐수처리 기술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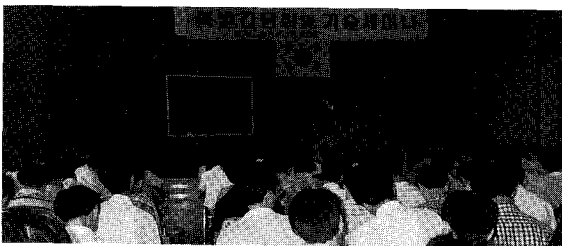


대구·경북협의회(회장·김남환)는 동절기를 맞이하여 소홀하기 쉬운 염색폐수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지난 11월 11일 계명전문대 다락방에서 「환경지도 단속방침 및 염색폐수처리 기술세미나」를 실시하였다.

환경관리인 1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된 동행사에는 반월염색공단 임재호 기술부장의 「염색폐수의 발생원 특성 및 처리공정」, 계명전문대 환경공업과 양용운 교수의 「동절기 폐수처리 실무」 등의 강연이 있었다.

경기협의회

기술교육 및 개선사례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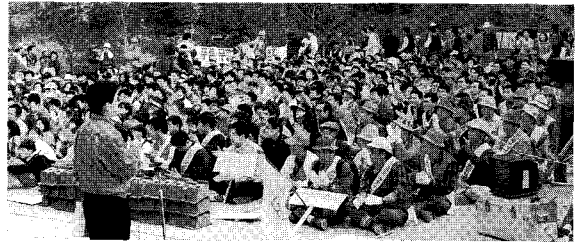


경기협의회(회장·이상호)는 각 산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처리의 문제점 및 처리방안과 신기술 보급 등을 주제로 지난 11월 23일 안양문화회관에서 환경관리 기술교육 및 개선사례 발표회를 가졌다.

동행사에서는 수도권매립사업본부 박홍섭박사의 「산업폐기물 처리방법 및 반입절차 요령」 등의 강연과 강남화성 환경관리과 신대승차장의 「환경관리 현황과 환경오염방지 업무개선 사례」에 관한 연구발표 등이 있었다.

광주·전남협의회

배출시설 해설 세미나



광주·전남협의회(회장·김왕근)는 환경실무자의 대기, 수질, 소음·진동분야 배출시설 용어에 대한 해석상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고자 지난 11월 27일 광주상공회의소 7층 회의실에서 「환경실무자를 위한 배출시설 해설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협의회 자체 임원 및 회원들이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발간한 「배출시설 용어 해설집Ⅱ」를 교재로 선정한 동세미나에는 광주직할시청 이윤희 환경관리계장의 「배출시설 용어 해설」 교육이 있었다.

한편 지난 11월 8일은 동협의회가 가입되어 있는 무등산보호협의회와 광주문화방송이 공동 주최한 「'92 추계 무등산 사랑 범시민대회」에 협의회 임원 및 회원이 다수 참가하였다.

7천여명의 환경관계인과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범시민대회에서는 무등산사랑 캠페인, 야생동물방사, 쓰레기수거 및 무등산 소재 쓰레기장 폐쇄를 알리는 고지문설치 등의 행사가 이루어졌다.

영·호남 환경인 친선교류

본연합회 광주·전남협의회와 대구·경북협의회는 지역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한편, 보다 발전된 상호기술 보급의 필요성을 인식, 지난 10월 27일 경주 파고다 호텔에서 영·호남 환경관리인협의회 임원 친선교류를 가졌다.

양협의회에서 준비한 선물과 기념품 교류에 이어 협의회장의 「광역적의미의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한 이 자리에서는 추후계획으로 '93년초에 대구·경북협의회 주최로 광주·전남협의회소속환경 관리인을 초청, 지리산에서 세미나 및 자연보호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